

'아트오앤오 2025'
기대를 뛰어넘는 두 번째 행보

폭넓은 국제 참여와 유니크한 작품들로
관람객과 컬렉터 모두의 이목 집중
갤러리와 관람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차세대 아트페어의 모델 제시



<사진제공 아트오앤오>

ART OnO 2025

Young and Fresh, but Classy

공식 타이틀	ART OnO 2025 / 아트오앤오 2025
일정	2025년 4월 10일(금)~4월 13일(일)
장소	SETEC 제 1 전시실, 제 2 전시실, 제 3 전시실
주최 / 주관	(주)아트오앤오
문의	(주)아트오앤오 02-707-2024
공식 홈페이지 및 SNS	https://art-ono.com / @art_ono_seoul
티켓	공식 홈페이지, 네이버 예약, 티켓링크, 인터파크, 널위한99 티켓, 피플리 - Preview 150,000 원 (행사 전일 재입장 가능, VIP Preview 포함) - 일반 50,000 원 - 학생 및 문화누리카드, 예술인패스 소지자, 한국미술협회 회원 25,000 원 - 단체 할인(10인 이상) 40,000 원
홍보담당	press@art-ono.com

● 글로벌 컬렉터의 집중 참여와 신진 작가의 활약

2025 년 상반기 국내외 주요 아트페어 일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트오앤오 2025 가 그 중심에서 단연 돋보이며 주목받았다. 4 월 10 일부터 14 일까지 서울 세텍(SETEC)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2 회차를 맞아 한층 정교해진 운영과 큐레이션, 그리고 밀도 높은 콘텐츠로 관람객과 미술 관계자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글로벌 컬렉터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진 작가들의 활약, 그리고 다양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아트오앤오는 단순한 규모의 확장을 넘어, '새로운 아트페어의 기준'을 다시 한번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글로벌 컬렉터 및 VIP 방문

이번 아트오앤오 2025 에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북미 등 서구권 컬렉터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어졌다. 아시아권 컬렉터들은 물론 서구권 컬렉터들까지도 서울에 체류하며 직접 전시장을 찾는 모습을 보였고, 관람과 적극적인 구매 활동을 이어가며 전시장 내 활기를 더했다.

해외 주요 VIP 컬렉터들의 직접적인 구매도 활발하게 이뤄졌으며, “한국 방문이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반응과 함께 국제적인 미술 시장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는 자리로 평가되었다. 특히 Tokyo Gendai, ART TAIPEI 등 주요 글로벌 아트페어 관계자들의 방문, 그리고 Brandon Cheng, Vicky Chen,을 비롯한 해외 컬렉터들의 꾸준한 현장 방문은 이번 행사의 국제적 파급력을 방증한다.

Dominique Fung, Mike Lee 등 국제적 작가들뿐 아니라, 특별전에 참여한 Sareena Sattapon, 토크 프로그램에 참여한 Matthias Garcia 등 해외 아티스트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이어지며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글로벌 경매사 필립스(Phillips)의 아시아 지역 회장 Jonathan Crockett, 이학준 크리스티 코리아 대표, 김윤희 소더비 코리아 대표 등 경매 업계를 대표하는 인사들도 현장을 직접 찾았다. 특히 김윤희 대표는 토크 프로그램에 연사로 참여해 미술 시장에 대한 전문적 통찰을 전하며, 관람객들과의 깊이 있는 교류를 이끌어냈다.

이외 주요 방문객 리스트 :

- Rudy Tseng

대만 타이베이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현대미술 컬렉터이자 독립 큐레이터로, 아시아 미술계에서 손꼽히는 인사 중 하나이다.

- 유명인

슈퍼주니어 동해, 배우 이세영, 배우 소유진, 육준서 등

● 작가 및 갤러리 주요 성과

국내 신진 작가들의 작품이 세계 컬렉터들의 이목을 끌며 활발히 거래되었고, 일부 작가는 개막 첫날 출품작을 전량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이엔드 컬렉터들부터 합리적인 가격대의 작품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의 거래가 이루어지며,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의 활기가 돋보였다.

- 갤러리 바톤은 올해 허우중 작가의 솔로 부스를 선보였다. 허우중 작가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이미지에 대한 탐구를 회화로 풀어내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에서도 대표작 'Resonance1' (2024)을 비롯해 출품된 대부분의 작품이 컬렉터들의 높은 관심 속에 페어 기간 내내 고르게 판매되며 주목을 받았다.
- 아트사이드 갤러리는 김시안과 강준석, 두 명의 작가로 구성된 2인 부스를 선보이며 세심한 큐레이션과 균형 잡힌 시선을 드러냈다. 두 작가의 상반된 미감이 조화를 이루는 전시 구성은 갤러리의 기획 역량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김시안 작가의 작품은 모두 판매되었으며, 강준석 작가의 작품 역시 개막 초반부터 활발한 거래가 이뤄졌다. 국내외 컬렉터들로부터 고른 호응을 얻으며 상업적 성과와 함께 평면 회화에 대한 현재 시장의 관심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 갤러리2와 에스터쉬퍼는 전현선의 수채화 신작을 중심으로 섬세한 큐레이션을 선보이며, 개막 첫날부터 주목할 만한 판매 성과를 기록했다. 두 갤러리가 각각의 방식으로 작가의 최근 작업을 소개한 점이 컬렉터들의 높은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출품된 작품은 모두 빠른 시간 내 완판되었다. 이와 함께, 양 갤러리에서 소개한 다른 작가들의 다양한 매체 작품들도 고른 판매를 기록하며, 전시 구성과 작품 선별에 대한 전략이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었다.
- 아라리오갤러리에서는 노상호 작가의 대형 설치작품 '홀리-중력과 은총'과 '완판 작가'로 알려진 옥승철의 신작 회화 '헬멧'이 판매되었다. 이 외에도 설치부터 영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미디어의 작품들이 첫날부터 활발히 판매되며 높은 반응을 얻었다.
- 지난해 에이라운지를 통해 완판을 기록한 1997년생 작가 이코즈는 올해도 관람객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으며, 작품 '아이베이스볼-토스볼 땅볼스윙'은 박승호 박서보재단 이사장이 직접 구매했다. 해당 작품의 캔버스도 그가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 폰토니 갤러리의 경우 영국 작가 크리스 리버스의 우주를 배경으로 한 작품 두 점이 공개 후 한 시간 만에 모두 판매되었으며, 고가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거래가 성사됐다. 도미닉 폰토니 대표는 아트오앤오는 각 부스마다 고유한 이야기와 매력을 담은, 정말 특별한 아트페어라고 호평했다.
- 카이카이 키키 갤러리 부스에서는 일본 네오파프 아티스트 미스터의 대표작이 상당한 고가에 출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뷰 시작 직후부터 빠르게 판매가 이뤄졌다. 이 외에도 오픈과 동시에 선판매 없이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만 판매된 작품이 다수에 달할 만큼 뜨거운 반응을 얻었으며, 전시 개막 초반부터 활발한 거래가 이어졌다. 이후에도 현장에서의 문의와 관심이 꾸준히 이어졌고, 마지막 날까지도 많은 수의 작품이 판매되며 미스터 작가에 대한 국내외 컬렉터들의 높은 관심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Young and Fresh, but Classy

- 미사코&로젠의 제프리 로젠 대표는 아시아 미술계의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한국은 앞으로 더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Ken Kagami, Trevor Shimizu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현장 문의가 활발히 이어졌으며, 실제로 수 점이 판매되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 일본의 토미오 코야마 갤러리는 1970~80년대 한국 가정집 거실을 콘셉트로 꾸민 부스에서, 동묘에서 수집한 빈티지 가구와 함께 작품을 전시해 이색적인 연출로 주목받았다. 토미오 코야마 갤러리는 이번에도 다수의 작품을 출품하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작업을 선보이는 행보를 이어갔고, 현장에서 여러 작품이 거래되며 의미 있는 판매 성과도 함께 거두었다.
- 디스위켄드룸은 아트오앤오 2025에 참여해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였다. 현대 사회와 일상의 감각을 포착한 설치 및 회화 작업들이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전시 첫날 다수의 작품이 판매되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 기체는 아트오앤오 2025에 참여하여 다양한 국적의 작가들과 함께 현대 도시의 삶과 전통을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였으며, 전시 첫날부터 대부분의 작품이 판매되며 컬렉터들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이후에도 작품에 대한 문의와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며, 전시 기간 동안 추가적인 판매 성과도 거두었다.
- 갤러리 징크는 이번 아트오앤오 2025에서 Cinta Vidal과 Thao Nguyen Phan의 작품을 비롯해 다수의 출품작을 판매하며 고른 성과를 거두었다. 국내외 컬렉터들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 다양한 작가의 작품이 활발히 거래되었으며, 갤러리의 특색 있는 큐레이션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 국내외 갤러리 및 컬렉터의 평가

-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아트오앤오를 찾았다는 일본 고베의 한 컬렉터는 큐레이션의 완성도와 신선한 한국 갤러리의 참여를 인상 깊게 평가했으며, 독일 니노마이어 및 토미오 코야마 갤러리의 작품도 높이 평가하고 국내 컬렉터들과 함께 여러 작품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 올해 아트오앤오에 처음으로 참여한 솔타나 갤러리 대표는 큐레이션의 완성도와 젊은 관람객층의 비중을 높이 평가하며, 이번 페어가 네트워킹과 판매에 있어 갤러리들에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 백수잔 백아트 대표는 이번에 참가한 갤러리들을 보며, 작가와 작품의 진정한 가치를 전달하려는 진정성 있는 시도와 젊은 작가 발굴에 주력하는 노력이 인상 깊었다고 평했다. 또한 전시 자체의 완성도와 전시장 환경의 전반적인 퀄리티가 매우 높았으며,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요소들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작품을 구매하려는 컬렉터들뿐만 아니라, 예술에 깊은 관심을 지닌 관람객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아 아트페어로서의 매력과 가능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 갤러리 징크 대표는 아트오앤오는 신진 작가뿐 아니라 중견 작가들까지도 새로운 방식으로 조명된다는 점에서 특별했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대 이상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 운영 및 프로그램

- 지난해보다 한층 향상된 운영 퀄리티와 신중하고 수준 높은 큐레이션으로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컬렉터뿐 아니라 일반 관람객들을 위한 특별전과 SPOT OnO A(rtistic) 섹션, 도슨트 프로그램, 토크 세션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풍부한 예술적 경험을 선사했다.

- 아트오앤오 2025의 전반적인 경험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 데에는 전략적인 브랜드 협업이 큰 역할을 했다. 전시장 곳곳에는 감각적인 공간 구성과 미식적 즐거움이 어우러지며 관람의 깊이를 더했다. 시즌드시즌, 트레이버틴, 빨라쵸, 오토보트, 바통, 과자방 등 다양한 F&B 브랜드가 참여해 각자의 개성과 취향을 담은 다채로운 먹거리를 선보였으며, 바라하우스, 오메코, SAMMENS KAB 등의 라이프스타일 및 가구 브랜드는 전시와 어우러지는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해 호응을 얻었다. 신동와인의 음료 셀렉션도 관람객의 기호를 만족시켰으며, 특히 VIP 라운지에서는 페르노리카 코리아의 하이엔드 주류 플랫폼 '르세르클(LeCercle)'이 선보인 컬렉션이 눈길을 끌었다. 세계적인 예술가 및 공방과의 협업으로 탄생한 희소 주류들은 단순한 음용을 넘어 하나의 예술적 오브제로서 기능하며, 공간의 품격을 한층 높였다.

이러한 브랜드 협업은 아트오앤오가 지향하는 다차원적이고 몰입도 높은 문화예술 경험을 구현하는 데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 아트오앤오 2025 주간에 포착된 서울 문화예술계의 활기

아트오앤오 2025가 열린 주간, 서울의 주요 문화예술 기관들 또한 다채로운 기획 전시와 프로그램을 활발히 선보이며 도시 전역에 예술적 흐름이 응집되는 특별한 시기를 만들어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스페이스K 서울을 비롯한 주요 기관들은 동시대 미술의 감각을 반영한 전시를 운영했으며, 페이스 갤러리 서울과 갤러리 바톤 등 주요 갤러리들 또한 국제적인 작가들의 개인전을 통해 각기 고유한 미술 언어를 제안하며 예술적 깊이를 더했다.

이처럼 서울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진 예술적 움직임과 함께한 아트오앤오 2025는, 다양한 문화 예술 경험을 찾는 국내외 미술 애호가들에게 한층 밀도 높은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페어는 높은 수준의 전시 퀄리티와 완성도 있는 운영, 그리고 풍부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전시장을 찾은 많은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이끌어냈으며, 전반적인 판매 실적 또한 긍정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아트오앤오는 이번 2회차를 통해 단순한 전시 플랫폼을 넘어, 예술과 시장, 일상과 감각을 연결하는 차세대 아트페어로서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해 보였다.

● 페어 전경 이미지





ART OnO 2025

Young and Fresh, but Classy





ART OnO 2025

Young and Fresh, but Classy

